

# “ICCP 유치로 학문적 ‘글로벌 시대’ 실현, 부산대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이 생겨날 것”

IBS 기후물리 연구단(ICCP) 유치에 결정적 역할 수행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



부산대가 올해 1월 IBS 기후물리 연구단(ICCP) 유치라는 위업을 달성한 데에는 자연과학대학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하 교수는 연구단 유치의 선결 조건인 단장 영입의 최선에서 미국 하와이대학교 해양학과 악셀 팀머만(Axel Timmermann, 액슬 티머먼) 교수를 영입하는 등 ICCP 유치 기반 조성을 진두지휘했다. 하경자 교수를 만나 IBS 기후물리 연구단 유치 과정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IBS 내 기후물리 연구단 설립 필요성 설득하고 연구단장 물색 노력

“기후물리 연구단의 공간 유치과정을 이야기 하자면 그야말로 ‘롱 스토리(long story)’입니다. 그만큼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저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산대 IBS 기후물리 연구단 유치를 추진해 온 대기환경과학과 하경자 교수는 우리 부산대가 뚝뚝 뚝치고 합심하여 오랜 기간의 준비와 노력 끝에 일궈낸 성과여서 더욱 값지고 책임감도 매우 크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문제가 전 세계의 밀레니엄 과제이자 물리학계의 난제로 불리는 현실 속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는 기후물리학을 총체적으로 연구할 IBS 기후물리 연구단 유치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과도 깊이 관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기초과학연구원(IBS)과 부산대가 지난 1월 공식적으로 연구단 유치 사실을 밝혔지만, 실은 세 차례의 평가를 마치고 사실상 유치 선정이 확정된 시기는 2014년 10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해 12월에 공식 발표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발표가 미뤄진 것은 그만큼 연구소 유치가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과 함께, 단장 영입에서부터 제대로 된 연구단의 골격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11월에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초기에 생물·물리·화학 중심의 기초과학 연구를 진행해 당시에는 지구과학 분야가 ‘기초연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하 교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글로벌연구실(GRL, Global Research Laboratory) 사업의 기획연구과제 등을 통해 IBS에 지구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기초학문인지 어필하고, 국내외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나 많은 의견과 조언을 지속적으로 구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IBS 내에 5개의 지구과학 관련 테마를 만들 수 있었으며, 그 첫 번째 테마가 바로 기후물리 분야였고, 결국 부산대가 IBS 연구단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이다.

## 팀머만 단장 영입은 부산대의 연구중심대학 도약이라는 또 하나의 발판

“팀머만 교수는 제가 글로벌연구실(GRL) 연구를 위해 하와이대학교에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의 GRL 파트너이자 기후학 분야의 석학인 하와이대학교 빈 왕(Bin Wang) 교수가 자신의 동료교수인 팀머만 교수에게 저를 소개했고, 부산대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부산대에서 연구하기를 팀머만 교수에게 적극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팀머만 교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러한 노력 끝에 팀머만 교수는 2013년 12월부터 3개월간 부산대를 방문해 높은 잠재력을 확인하고 연구단 단장 부임이라는 마음을 굳히게 됐다. 실제로 부산대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물리학과·해양학과·대기환경과학과 등 관련 학과의 연구역량이 국내 수준급이며, 기후연구 관련 논문 수도 국내 2위를 차지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팀머만 단장은 앞으로 10년 간 IBS 기후물리 연구단의 단장으로서 연구를 진두지휘하고 3년에 한 번씩 연구에 대한 중간평가를 받게 됩니다. 5년 후에는 직접 학생들에게 강의도 나설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대 학생들이 세계적인 석학과 공부를 하게 되는 좋은 기회죠.”  
하 교수는 기후물리 연구단은 팀머만 단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현재 부딪친 기후과학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연구그룹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단은 지구기후시스템역학, 고기후학, 수문기후학, 기후모델링, 인간과 기후라는 5개 그룹으로 구성된다. 올해 2017년도에는 2개 그룹부터 먼저 출발하고, 내년까지 3개 그룹의 연구진을 모두 갖춰 상호 연계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갈 계획이다.

## 부산대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함께 연구하는 꿈 실현 가능

하경자 교수는 물리학·해양학·기후학·고기후학 등 다양한 전공을 총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팀머만 단장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융합·통합적 시각을 갖고 연구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팀머만 단장의 포괄적인 학문적 스펙트럼은 대학원생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것이며, 직접적인 학문적 사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부산대 학생들은 이제 꿈이 생겨날 것입니다. 말로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 체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부산대에서 세계적인 석학들과 최고의 연구인프라 속에서 함께 연구한다는 것은, 굳이 MIT 같은 곳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글로벌(Global+Local)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지 않을까요?”  
수문기후(문순기후역학) 연구의 권위자인 하경자 교수는 앞으로 기후물리 연구단과 더불어 자신의 연구 분야와 함께 지구과학이라는 융합학문을 심화시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팀머만 단장이 한국에 잘 정착하도록 물심양면 도움을 주고, 자신의 학문과 팀머만 단장의 철학이 잘 융화되어 큰 시너지를 발현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기후물리 연구단이 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대 학생들이 세계적인 석학과 함께 공부하게 되는 좋은 기회죠”

